

개도국 농업 문제 해결 기여

농진청,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농업기술 혁신 성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장장 허태웅)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과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의 '아프리카 농 개발 파트너십 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 22개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빈곤퇴치와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이 높아 인정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는 국제연구기구인 아프리카 농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19개 국가에 다수성 농 품종을 개발·보급해 식량 안보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조사·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사례를 공공혁신전망대(OSDI) 누리집(www.oecd-opsi.org)에 등록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으로 우리나라가 우수한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으며 농업기술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유엔 산하 '팩트 글로벌 레드 이피아드 네트워크'로부터 빈곤퇴치 분야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기후변화협약은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사업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우수사례로 수록했다.

/김윤상기자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아시아 13개국과 공동 제작한 토양 유기탄소 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FAO 글로벌 토양 유기탄소지도'에 공식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했다.

세계은행은 '농업 분야 지식공유 가이드북'과 지난해 연보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과 개발협력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사업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운 국장은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혁신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농촌진흥청의 개발협력 성공 사례들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협력분보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추석 환전 이벤트 진행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임정규 신임 전북우정청장 오늘 취임



제38대 임정규 전북지방 우정청장장이 17일 취임해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임정규 청장은 "맛과 멋, 전통의 문화와 넉넉한 인심이 함께 어우러진 전북에서 제38대 우정청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전북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전북우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청장은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미국 UC Berkeley 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

“올해, ESG 신경영 도약 원년”

국민연금, 창립 34주년 기념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창립 34주년 기념식에서 ESG 투자의 글로벌 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ESG 경영을 도입해 올해를 '국민연금 ESG 신경영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소규모로 개최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하메시지, 삼영, 유공 직원 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기업자 2천2백만 명, 수급자 550만 명, 기금적립금 900조의 '국민의 연금'으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애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영태 기자



LX공사는 16일 본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시작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지적의 날 비대면 행사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수여식을 가졌다.

LX,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수여식

S/W 무상 제공 등 지원

LX공사는 16일 본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를 시작한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지적의 날' 비대면 행사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수여식을 가졌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LX공사와 민간이 각각 수행해온 지적재조사를 공동수행방식으로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LX공사는 지난해 10개 민간대행사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올해는 88개 민간대행사와 책임수행기관 협력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무상 제공, 역량강화 교육, 협력데스크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민·관·공 협의회에서 민간대행자는 책임수행기관 LX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동수행방식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국책사업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LX공사는 지적재조사의 신기술을 접목시켜 사업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LX공사는 경북 칠곡군 남계 1지구를 대상으로 실험사업을 실시한 결과 3D 고정밀 영상을 및 모바일 측량시스템 활용, 업무 프로세스 재점검 등을 통해 약 3개월 정도 공정기간 단축 시키기도 했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서 민간과 상생은 공공기관으로서 꼭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민간대행자의 사업 안정화와 국책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정은성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추석 환전 이벤트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다음 달 15일까지 을원뱅크의 외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석엔 내맘대로 환전하고 달려도 선물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기간 동안 NH농협은행에서 '감동! 외화선물하기'로 외화를 선물하거나 '내맘대로 외화BOX'로 환전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큐커(1명), 갤럭시 버즈(5명)를 제공한다.

또 NH농협은행 공식 SNS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서비스 관련 퀴즈를 맞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맘대로 외화BOX'는 환전금액을 외화BOX에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끼니 쓸 수 있는 을원뱅크 전용 서비스로 USD10부터 USD2000까지 환전이 가능하고, USD, EUR, JPY 등 주요통화는 90%, CNY 외 10종 등 기타통화는 40% 우대 환율을 받을 수 있다.

김동! 외화선물하기는 상대방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만 알면 USD10부터 USD600까지 외화를 선물할 수 있는 을원뱅크 전용 서비스로 USD, EUR, JPY 등 주요통화는 90%, CNY는 40%까지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이영태 기자

전북은행 JB카드, 주요 패션

아울렛서 추석 사은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추석을 맞아 주요 패션 아울렛에서 대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JB카드로 3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 원, 60만 원 이상 사용 시 2만 원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부여 롯데아울렛에서는 이달 말까지 공휴일 포함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JB카드로 2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의 롯데상품권을 제공하며 모다이아울렛 전주점점에서는 오는 19일까지 JB카드로 15만 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현장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반등을 위해 소비가 많은 추석명절에 맞춰 무이자 할부도 제공된다. 전 가맹점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며, 백화점 및 아울렛 등 10대 업종에 대해서는 2~5개월 무이자 할부, 6~12개월까지 부분 무이자 할부가 올해 연말까지 제공된다.

/이영태 기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청년 창업농에 '큰 관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16일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 청년 창업농 및 2030 세대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이동·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창업농, 2030세대, 전업농, 귀농자 등에게 장기 임대해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이하 청년창업농) 전국 1804명, 전북 295명 선별에 맞춰 74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지매입에 나섰으며, 지난 13일까지 전북지역의 185명의 고령·은퇴예정 농업인으로부터 362필지, 94ha의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한 농지가 논일, 경유,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들에게 티끌제재배 조건으로 우선 임대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5년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농지 이용실태를 평가해 재임대도 가능해 영농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인터넷 농지는 행포털을 방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